

해부학의 개척자

張 信 堯 박사



“성실하게 살면 빛을 보게 되지요”

대담 / 李 光 榮

(한국일보 부국장/본지 편집위원)

우리나라 해부학 발전에 큰 획을 그은 장신요(張信堯)박사는 요즘 흥분한 기분이다. 71세까지 현역교수로 강단에 섰으니 남보다 6년이나 더 오래 봉직했고

하나 둔 아들(張麟·경희대 내과 교수)이 같은 의학도로 대학 강단에 섰으며 아직 건강해서 활동에 지장없고 연금이 나와 살기에 부족함이 없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한다.

장박사는 아내(金淑姬)와 단출하게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신동아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올해 한국 나이로 77세인 1919년생. 하지만 요즘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집 앞 한강 고수부지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낮엔 젊은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삶을 가꾸어 가고 있다.

■ 먼저 선생님의 성장과정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살지요

내가 태어난 곳은 평북 선천(宣川)입니다. 나는 비교적 부유한 집안(부·張應乾, 모·曹禮煥)의 3남3녀중 맏으로 태어났습니다. 선천공립보통학교를 거쳐 신성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당시 신성중학교 교장은 서울대 총장을 지내신 張利郁씨였습니다. 그리고 민속학의 원로이신 任哲宰씨가

일본어를 가르치셨습니다. 임선생님은 “사람은 항상 성실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평범한 말이었지만 나는 이 말 씬이 마음 속에 남아 평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 신성중학을 졸업한 후 의학을 전공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셨는지요.

특별한 동기는 없었습니다. 당시엔 이른바 명문이라고 하는 제국대학을 가려면 고보를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 고보에 응시했는데 낙방했습니다. 그래서 한해를 쉬고

다시 응시했으나 또 실패해 일본의대 예과에 들어갔지요. 일본의대는 대부분이 일본 학생들이었고 한국 사람으로는 2년 선배로 朴吉秀(전 서울대 외과 교수)씨와 동기로는 현재 부산에서 피부과를 개업하고 있는 盧栢熙씨가, 3년 후배로는 현재 서울 을지병원장인 趙軫奎씨(이비인후과)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학자금을 비교적 넉넉하게 붙여주어 공부만 하면 되었고 학생들과도 잘 어울려 한국 학생이라 해서 별 다른 어려움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예과 3년동안이 가장 재미있었던 시절 같습니다. 일본의대 예과때 영어선생이 한 말이 나의 삶에 젊음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젊음과 젊었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 늙어도 젊음을 가질 수 있다. 늘 젊음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젊은 마음으로 젊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학을 공부한 후 임상의가 되지 않고 기초의학인 해부학을 택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지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만 어려서부터 생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해부학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해방이 되어 귀국한 후 1945년 9월 서울대 의대 해부학교실 조교로 발령을 받은 후부터였습니다. 졸업하고 잠시 일본의대에서 산부인과교실의 조수(助手)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에 자리 잡은 후 강사(49년), 조교수(55년), 부교수(60년)를 거쳐, 교수(64년)가 되어 65세 정년(84년)을 맞기까지 줄곧 서울대에서 해부학을 가르치고 연구를 해왔지요.

■ 초기 서울대 의대 해부학교실의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체질의학연구로 명성

서울대 의대는 일제시대 경성 제국대학 의학부였는데 체질의학연구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특히 한국과 몽고·중국인의 체질의학연구의 본거지였지요. 그래서 해부학교실에 두 강좌가 배당돼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해부학교실에 대부분 한 강좌를 두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강좌의 수에 따라 교수의 수가 결정되기 마련이었는데 대략 한 강좌를 개설하려면 교수 1명, 조교수 1명, 강사 1명, 조교 3명 정도가 배당되었습니다. 당시 서울대 의대 해부학교실엔 한국과 몽고·중국인의 골격을 2백구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경의전과 통합하면서 골격이 4백구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해방직후 서울대 의대 해부학교실엔 羅世振씨와 李明馥씨가 교수로 계셨습니다.

초기 서울대 의대는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사상적인 갈등이 컸습니다. 그래서 연일 학생들간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특히 국대안 반대데모가 격심했지요. 이같은 학생운동이 가라앉아 수업을 좀 하려하자 6.25가 터졌습니다. 초기에 나는 골격의 골반계측을 통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몽고와 중국사람들의 체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반계측에 착안한 것은 골반이 사람의 골격중 남성과 여성은 물론 어린이와 어른, 민족간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나의 첫 연구논문은 경성여의대(고려의대 전신) 창간호 잡지에 실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6.25로 빛을

보지 못했지요. 그래서 수복후 논문을 다시 정리해서 「의학잡지에 3회에 걸쳐 게재(1953년)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는 결국 나의 박사학위논문이 되었습니다. 나는 6.25가 나자 다른 의대교수들과 같이 군의무관으로 차출돼 처음 부산군의관 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군의관학교가 마산으로 이전하며 나도 그리로 옮겨갔는데 주로 군인의 체격검사 일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때 장병들의 체격계측사업을 통해 국군 장병의 체격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문을 3회에 걸쳐 발표(1953~54년)했습니다. 임상의가 아니기 때문에 일선으로 가지 않고 후방에 남아 이같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서울대학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은 언제입니까.

골반계측 통한 체질 고찰

휴전이 된 직후인 1953년 가을입니다. 서울대 해부학교실은 수복후 유엔군의 장교식당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해부학교실에 있던 4백구에 달하는 한국과 몽고·중국의 골격들이 모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1956년 8월 미국제협력국(ICA)의 지원을 받아 도미, 서울대학과 자매결연한 미네소타대학에서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해 돌아와 본격적으로 후학도의 교육과 체질의학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984년 2월 서울대 의대를 정년 퇴직할 때까지 65편의 체질 인류학에 관한 논문을 내놓



▲장박사(右)는 한국인과 일본 중부(近畿)지방 사람들의 골반골격이 유사하다는 것은 특기할만한 일이라며 이광영 본지 편집위원에게 들려주고 있다.

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로한 논문은 계측을 통한 비교연구였습니다. 당시 연구비 마련이 어려운 상태여서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주제들이었지요.

■ 연구는 주로 체질인류학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질인류학적으로 한국과 일본·몽고·중국 사이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요.

나는 주로 골반에 관한 계측을 통해 체질인류학적 고찰을 했는데 특기할 만한 일은 한국인과 일본의 교토(京都)와 오사카(大阪) 등 중부(近畿)지방 사람들의 골반골격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백제가 망할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이 지역에 정착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오래전에 일본에 토착한 토착민과 대륙에서 건너간 사람, 또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섞여 혼합인종을 이루고 있는데 유독 중부지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골반골격을 닮은 것은 특기할 일이지요.

■ 당시 한국인의 표준체격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1953년부터 54년까지 실시한 한국인 장정 체격 측정결과는 키가 162.7cm, 체중은 56.56kg, 가슴둘레(胸圍)는 86.08cm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967년에 실시한 운동선수의 체격기준 측정에 따르면 평균키가 171.1cm였습니다. 경기종목별로 보면 농구와 배구선수가 가장 커 180.00cm, 다음은 육상과 수영·펜싱·배드민턴·승마·빙상·유도·정구선수로 평균 170cm였고, 권투·육상·탁구·레슬링·자전거·스키·축구·사격·하키·역도선수가 가장 작아 평균 160cm였습니다.

지금의 운동선수에 비할 때 꽤 단신이었지요. 1968년에 실시한 한국인의

연령별 체격기준은 10세까지 완만하게, 이후 14세까지 급속하게 성장하다가 다시 완만하게 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자는 18세에서도 성장을 계속하고, 여자는 16세에 발육이 거의 완성된다는 사실이 들어났습니다.

한편 나는 고분에서 출토된 골격연구를 대부분 도맡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경주 제98호 고분에서 출토된 뼈에 대한 연구는 흥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주 제98호 고분에서 출토된 고분골은 20개의 골편과 28개의 치아였는데 연구결과 대퇴골편이 4개, 추골체가 1개, 쇄골편 1개, 흉골편 1개, 하악골편 1개, 늑골편 3개, 지골 4개, 치아 16개로 판명됐고 신장은 약 148cm의 15세 전후의 여성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본장의 상부에 순장(殉葬)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두개골골편 5개와 치아 12개는 약 60세된 남자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 서울대를 정년퇴직하신 후 조선대학으로 옮겨 후학도를 기르고 연구도 왕성하게 계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대를 정년퇴직하기 직전 조선대로부터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자리를 옮겨 1984년 3월부터 1990년까지 교수와 의과대학장(88년 8월), 대학원장(88년 10월)을 거쳐 1990년 퇴직했습니다. 그동안 7편의 논문을 더 냈습니다. 총 72편의 논문을 낸 셈입니다.

■ 후학도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학술원회원 위촉 큰 보람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항상 성실하게 하면 어느 때인가는

큰 일을 맞게 되고 또 그 일로 해서 인정을 받아 빛을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의학에 우수인력이 많이 남아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내가 연구하던 시절과는 판이하게 연구비도 많고 연구시설 등 연구환경이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기초의학도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뻗어나갈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초의학부문에 훌륭한 학자가 많이 나와 우리의 의학수준을 높여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후학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 무척 흐뭇합니다.

장신요박사는 1953년 2월 첫 논문이 인쇄물이 되어 나왔을 때와 1984년 2월 서울대 의대를 정년퇴직하신 후 곧 명예교수로 임명되고 1987년 8월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된 것이 일생 중 가장 보람있었던 일이었다고 했다. 서울대 명예교수와 학술원 회원이 된 것은 그동안의 노력을 사회가 공적으로 인정해 준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 했다.

장신요박사는 요즘 채식주의를 맹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건강관리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건강관리는 그야말로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요즘 학문적으로 이론이 확립되지 않은 건강요법이 판을 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서양 사람이 고기를 즐겨 먹기 때문에 채식을 즐기는 동양 사람에 비해 수명이 짧고 병이 많으며 힘을 못쓴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장박사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했다.

건강의 비결은 음식을 골고루 잘 먹되 살코기를 반드시 먹어야 하며 이에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⑮